

월요광장



이 승 권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여행가이드 잡지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에 따르면, 2014년에 세계인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프랑스 파리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2013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도시도 파리라고 한다.

신의 도시에서 왕의 도시로, 왕의 도시에서 빛의 도시로 변신을 꾀했던 파리는 인간의 도시를 꿈꾸고 있다. 파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지만 과거를 망각하지도 않는다. 파리는 현실을 중시하지만 미래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파리는 과거를 현재에 재현하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 현재를 확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며 재창조되고 있는 파리! 루브르의 변신에서 보여준 파

도시의 창의성에 대한 단상

리의 역동성은 미세하지만 파격적이다. 외견상 현실에 안주하는 듯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파리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도시이다.

파리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 성찰이다. 끊임없이 창의적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파리의 문화적 호기심은 지질 줄 모른다. 창의성은 구호만으로 성취되는 대상이 아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순식간에 진부한 것이 되고 만다. 특히, 창의성을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려면 부단한 노력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함부로 사고하거나 마구잡이로 상상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같은 창조적 집단사고는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창의성은 복합적 사고의 산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이건 도시의 창의성이건,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가 창조적 변화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창의성은 실체가 없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같이 문명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창의성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었고 진부한 것과의 싸움이었다. 파리에는 파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파리는 오래된 것들을 진부한 것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오늘날에 진부한 것도 과거에는 창의적 사고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창조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이며 융합된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파리가 세계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진부한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려는 부단한 노력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창의적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파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계인은 파리를 방문하는 것이다.

게다가 파리에서 진행되는 창의적 도시 만들기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시민에게 맞는 창의적 활동을 수행한다. 나이와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창의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시민의 도시 해동력(urban literacy)을 키워간다.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꾼다면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 리터러시(culture literacy)를 키워서 문화 도시에 대한 시민의 안목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리즘(globalism)의 등장과 함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성 논쟁은 창의도시 만들기 열풍으로 이어졌다. 랜드리(Charles Landry), 플로리다(Richard Florida), 사사키(Sasaki Masayuki)로 대표되는 창조도시 이론가들은,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 인재의 역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창의도시는 창의 인재와 교감하는 시민들의 창의적 사고가 수렴되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이다. 따라서 창의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창의 인재의 선도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스킬(skill sets)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창의적 문화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전담의 개관에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ity of Media Arts)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법조칼럼



김 은 정
광주지검 검사

“용기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바른 검사, 공평한 검사, 진취적인 검사, 어떤 검사사가 되고 싶은지?”

5년 전 신입검사 교육 첫 5일간 각 임관한 신입검사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 우리는 5일간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토론하면서 어떠한 검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였다. 아마도 임관 후 한달동안 처음 접하는 ‘실제 사건’ 앞에서 실무적인 문제로 전전긍긍하였을 햇병아리 검사들에게 구체적인 실무교육에 앞서 임관시 검사 선서를 통해 다짐하였던 검사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려는 법무연수원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

5주간의 신입검사 교육을 마친 후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설문지에서 묻는 ‘어떠한 검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가슴이 따뜻한 검사’라고 기재

가슴이 따뜻한 검사

하였다. 경찰관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 검사가 되기 위하여 법대 진학을 결심했던, 검사란 ‘피해자를 울리는 나쁜 사람을 잡아넣는 정의의 사도’였던 내게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슴이 따뜻한 검사야말로 검사로서의 최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5년여간 많은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준 사건도 상당히 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른 청 근무 당시 여성 무속인을 사기죄로 직구수한 사건인데, 그 내용은 한 무속인이 자신을 찾아온 지적 장애 여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있는 남편이 곧 죽는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수년간에 걸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2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고 값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고, ‘사건’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의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 참고인을 내세워 참고인 진술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검찰 송치 후 관련 계좌 추적과 여러 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하여 위 피의자측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1심에

서 하위 증언을 한 위 참고인은 위증죄로 인지, 구속기소되었으며 피의자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전 재산을 편취당한 후 시댁에서 쫓겨나 식당일로 두 아이와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면서도 두 아이의 방학에 힘들어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정선장에 4급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전모기관 상담을 병행하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게 해 주었다. 처음 만났을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그녀는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에 어느덧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중앙비를 동원하여 강제철거해버렸음에도 인접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착오로 철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단순 재물손괴죄로 의을, 약 30쪽 분량의 기록으로 송치된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사실은 오토캠핑장 개발 중 땅을 팔지 않겠다는 원주민을 압박하기 위해 철거용역을 동원, 피해자의 주거를 강제 철거한 것이라는 사실의 진모를 밝혀내고 오토캠핑장 개발업자 등 수명을 인지, 구속하여 하루이침에 주거를 잃게 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도 있었다.

5년차 검사 생활이 한창인 요즘은 신입 검사 교육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과연 내가 따뜻한 검사가 되어 가고 있는지 되 돌아본다.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흘려들음은 채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사건관계인들의 각종 면담신청과 통화요구를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느라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어느덧 초심과는 꽤 멀어져 있는 나의 머릿속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되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특히 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피의자들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각각의 사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검찰청으로 가려고 하니 기사 아저씨가 대뜸 “어이쿠~ 그렇게 무서운 곳은 왜 가세요?”하고 되묻는다. 검사들이 이웃집 사랑방 같으면 아니 될 말이었지만 죄는 미우하도 사람만은 따뜻하게 대하고, 피의자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우리방’으로 들어선다.

기 고



문 석
한국감정평가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최근 국토교통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시지가(公示地價) 평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방식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나누어 정밀조사지역은 지금과 동일하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기본조사지역에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주)한국감정원이 가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각종 특성변동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며 감정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최종 지가만을 결정,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지난 8월28일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공시지가는 전국의 거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산정하는 공적 ‘땅값’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공시지가 제도 변경, 보다 신중해야

준이 되며 의료보험, 연금 등 여러 복지제도에 있어 부과기준 또는 수혜대상 선정의 기준이다. 토지보상금의 산정, 공직자 재산신고의 기준이 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표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중요 인프라인 것이다.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개편안은 우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찾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토교통부의 개편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절감이 공시지가 개편안의 최종 목표가 되기에 부적절하다. 단기적인 비용최소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포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면 초기에는 예산이 절감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사고발생이 늘어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월호를 보더라도 비용절감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밀·기본조사지역으로 나누어 평

가하려는 시도를 질병의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을 기본조사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광주·전남과 같이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이 많은 지역은 국민 재산권의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하겠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밀어붙이기와 감정평가사들의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 거부’ 움직임이 지속적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된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주)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출숙적인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백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학계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신중하게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참언한다면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계약 유익인과 관련해 감정평가업계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주)한국감정원의 상급기관인지, (주)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알아줬으면 한다는 점이다.

가하려는 시도를 질병의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을 기본조사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광주·전남과 같이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이 많은 지역은 국민 재산권의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하겠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밀어붙이기와 감정평가사들의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 거부’ 움직임이 지속적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된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주)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출숙적인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백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학계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신중하게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혁신도시 기업유치 막는 규제 과감히 풀라

나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 희망기업이 쇠도하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차질 공공기관 들어서고 추동력이 될 기업들이 뒤쳐져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까 심히 걱정스럽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클러스터 분양가를 조성원가(㎡당 42만 원)보다 싼 ㎡당 35만1000원으로 낮춘 데 이어 매머드급 공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이 압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미 23개 업체가 양해각서를 체결, 현재 13개 블록 46만3190㎡ 면적의 용지 가운데 7개 블록 15만9765㎡가 분양을 끝낸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6개 블록 30만3425㎡가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뒤늦게 필지성 개발을 위한 스킬(skill sets)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창의적 문화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전담의 개관에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ity of Media Arts)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 다시 드러난 고층 아파트 화재 무방비

심야에 17층 고층 아파트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으나 이웃 주민들의 신속한 진파로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울리지 않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소방 무방비’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13일 밤 11시 53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모 아파트 단지 내 305동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중경상을 입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을 낸 A(48)씨와 아내(41)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고, A씨의 자녀(12) 및 이웃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서 빠른 휘발유를 거슬러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나자 일부 주민들이 “불이야. 대피해!”라고 외치면서 화재 사실이 알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입주 예정시점인 11월에야 분양공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부분의 입주 희망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에 앞서 부지 매입, 착공 등의 과정을 마무리하려 했던 계획을 세웠지만 공고 지연에 따라 물거품이 될 유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조성사업의 주체가 되는 LH공사 등은 필지 세분화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나주시·전남도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는 산너머 산이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약속하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기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간 협의를 대폭 줄이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말뿐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실천적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사건 역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것도 경비실에서도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것도 밝혀져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어감없이 드러냈다. 또 아파트단지 내 빼곡히 들어선 주차차량과 좁은 소방도로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진화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는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골목 같은 구실을 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불길과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작동, 대피 안내, 소방차 진입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소방로 확보는 기본이자 필수인 것이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 안전시설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화재에 대비한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따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인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미지의 서쪽 바다를 향해 항해에 나선다. 그는 두 달여의 항해 끝에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 콜럼버스 일행은 원주민들이 말린 앵을 태워 연기를 마시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다. 이후 유럽으로 가지고 돌아온 담배 등 신대륙의 진기한 작물을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

“담배고(淡葉)가 지금 새로 나와서/ 귀양살이하는 자에게 제일이라네/ 가만히 빨아들이면 향기가 물씬하고/ 슬그머니 내뿜으면 실이 되어 간들간들...”이러거나 “담배 맛은 홀로 누웠을 때에 유득 깊이라--(煙味獨深 獨眠時)”와 같이 격언을 애찬하는 시를 여러 편 남겼다.

당시 문방사우에 빚대 담뱃대와 재떨이, 부싯통, 삼지를 ‘객연사우(曠煙四友)로 불렀다 한다. 조선총독부는 전매국을 설치한 후 재정확충을 위해 1921년 7월부터 담배 전매제를 실시한다.

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통 포함)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더욱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라는 측면보다 기호품인 담배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담뱃값뿐만 아니라 주منة, 자동차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마저 줄이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담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